

## ‘가족주의’의 굴레를 넘어 외친다, 굿바이 솔로

KBS <굿바이 솔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대범

### 1. ‘가족주의’의 굴레에 갇힌 TV드라마 속 ‘가족’

“가족이 그렇게 좋으면 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 마디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김영하, 『오빠가 돌아왔다』 중에서)” TV드라마는 어떤 장르보다 소재적 측면은 물론이고, 주제적 측면에서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시 습관적으로 ‘가족’을 이야기한다. ‘혈연=가족’에 위반되는 출생의 비밀과 이복남매 간의 사랑이라는 진부한 소재를 끌어들이면서 말이다.

그간 TV드라마에서 가족을 다루는 방식은 하나의 고정된 답론 즉, ‘정상 가족’<sup>1)</sup>을 상정하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가족주의’를 부각시켰다. 그러

---

1) 사랑과 결혼이 별개의 영역에 놓였던 시절, 결혼은 사회적 신분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속하기 위해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협상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부르주아들은 결혼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했다. 그것은 사랑은 결혼에 의해서 완성되며, 그것은 단 하나이면서 영원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 테두리에서 확립된 것이 ‘정상 가족’이다.

기에 ‘가족’이라는 틀에서 어긋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개별적 상처는 ‘가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곳에 개인(가족 구성원)은 없다. 단지, ‘가족’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드라마는(대부분의 아침드라마와 MBC <인어공주>, KBS <가을동화>, KBS <겨울연가>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리고 ‘가족’을 무기로 ‘쿨’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굿바이 솔로>의 영숙의 말처럼 “뜨거운 피를 가진 인간이 언제나 쿨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본다, 나는.”

그러나 최근 TV드라마는 ‘혈연=가족’의 상투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새롭게 ‘가족’을 규정하려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MBC <안녕! 프란체스카>, SBS <불량가족>을 들 수 있다. 이 두 드라마는 혈연에 연연하며 눈물샘을 자극하는 기존의 ‘가족주의’ 드라마와는 다르다.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가족’을 말하려 한다. 그러나 ‘혈연=가족’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의 상처를 제거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러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이 두 드라마에서도 개인(가족 구성원)의 상처는 ‘가족주의’ 함몰된다. 혈연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TV드라마 속 가족은 화목한 ‘정상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주의’의 이데올로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2.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

질러 말하자면, <굿바이 솔로>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굿바이 솔로>는 ‘가족’보다는 ‘개인(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한다. <굿바이 솔로>는 여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혈연과



가족을 내세워 '가족주의'로 해결하지 않는다. 그저 여러 인물들이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노희경에 있어서 적어도 진작 <꽃보다 아름다워>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 특징이다.

'가족'을 서사구조의 중심에 두는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공간은 가족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는 거실 또는 주방(식탁)이다. 가족들은 그곳에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표출되기도 그리고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굿바이 솔로>에 등장하는 7명의 주인공들은 가족은 있으나 가족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이 없다. 대신 그들에게는 (미영할머니)식당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각자의 상처를 곱씹으며 혼자서 밥을 먹는다.

### 3. 그(들)는 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을까

언론에 노출된 <굿바이 솔로>는 '스타 작가 노희경'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 이외에 '7명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적지 않은 수인 7명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가족'을 가지고 있기에 드라마의 주인공의 수는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 가족들의 일면을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가족이 없다. <굿바이 솔로>가 '가족'에 중점을 뒀다면, 진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굿바이 솔로>에 등장하는 7가족은 그간 여타의 가족을 다루는 TV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형에게 버림받은 사생아 민호, 가난에 찌든 부모가 부끄러운 지안, 부모가 농약 먹고 자살한 호철, 부모가 반대하는 남자와 함께 하기 위해 스스로 가족을 버린 미리, 남편의 매를 참지 못해 딸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던 미영, 약값 구하는 것에 지쳐 차라리 병든 어머니가 죽기를 원했던 영숙, 자기를 위한다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어머니가 미운 수희. 이러한 7개의 파란만장한 ‘가족’ 이야기는 그 어떤 하나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시끌벅적하고 복잡하게 꼬이는 ‘가족’ 드라마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7개나 있다.

그러나 <굿바이 솔로>의 구조는 예상을 깨고 의외로 단순했다. <굿바이 솔로>는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 구조가 단순할 수 있는 이유는 서사구조의 중심이 ‘가족’에 있지 않고 밥을 혼자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개인(가족 구성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을 복원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내러티브 구조 안에서 7명의 주인공들은 개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하나의 인물로 소급된다. 결국 언론이 부산하게 떠들었지만, <굿바이 솔로>의 주인공은 7명이 아니라 한 명이었다.

7명의 주인공들은 혼자 산다.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것은 ‘가족’에서 떨어져 독립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어휘가 형성하는 의미 망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혈연적으로 생긴 것이건, 법적으로 생긴 것이건, 이들에게서는 확실하다고 믿어 왔던 ‘가족의 사랑’이라는 테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들 각자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처는 그들이 혼자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의 테두리에 멀어지지 못하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자신에게서 떼고 싶어도 떼 수 없는 것이 가족이다. 매달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가는 민호지만, 그들의 만남은 철저하게 개별적인 공간(각자의 자동차 안에서 전화기를 사용해 소리만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민호 모는 묻는다, “밥은 잘 먹어?” 그리고 민호는 자신을 만나서 아무 말 없는 (가짜)아버지에게 “밥은 먹고 살아요. 아버지 맘엔 안 들겠지만, 전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면 그걸로 만족해요”라고 말한



다. 또한 자기를 위한다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어머니가 싫지만, 수희는 또 다른 남자를 소개하는 어머니를 만난다. 그리고 수희 모는 말한다. “수희야, 밥 먹으러 가자. 어? 엄마가 맛있는 거 시줄게, 밥 먹으러 가, 어?” 이렇듯 7명의 주인공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밥 먹기를 강요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밥 먹기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는다. 그냥 혼자 밥 먹기를 고집한다. ‘가족’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제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상처는 그들 스스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밥 먹기를 고집한다. 그리고 한 곳으로 찾아든다.

#### 4. 그(들)는 어디서 밥을 먹을까

“할머니, 밥”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미영할머니 가게로 들어온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 끼니를 해결한다. 그곳에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미영할머니가 있다. 6명의 주인공은 끼니를 때우면서 미영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한다. 대화는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끊임없는 자리바꿈을 전제로 한다. 이러할 때, 그들의 언어가 명령이나 복종이 아닌 대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미영할머니는 대화의 책임자가 아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미영할머니에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뉘두리나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의 일반 방식에 있어서이다. 주인공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그냥 밥집 할머니가 아니었다.

“사람 믿기 싫었어. 엄마도 지안이도 아버지도 형도 미리도 다 날 버리고, 그때 정말 살기도 싫었어. 근데, 할머니가 있었어. 내가 께판치고 돌아다녀도 밥 주고, 내가 술 먹고 뺨어도 밍다고 안하고, 웃어주고...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좋았어. 나한테 할머니 그냥 밥집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한테 나는 그냥 손님 아니잖아, 안 그러냐(필자강조)”

“그는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때론 거짓말을 하는 그조차 진실로 착각할 만큼.” 그들의 일상적 대화에는 ‘거짓말’이 내포되어 있다. 자신의 상처, 자신의 결핍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 자신을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거짓말. 이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미영할머니 앞에 있는 그들은 포장하지 않은 날것으로 존재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짓말을 멈춘다. 미영할머니는 수신자의 기능(초반에는 그들의 입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미영할머니는 일부러 입을 닫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는 상태였다)은 가지고 있으나 발신자의 기능은 매우 제약적이다. 그는 그저 고개를 반복적으로 끄덕거리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몇 개의 어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6명의 주인공들은 고해성사를 하듯 할머니 밥집을 찾는다. 그리고 마치 대답 없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듯, 거짓말로 가려진 자신을 껍데기를 벗어버리면서 상처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 받는다. 그것은 다른 TV드라마에서 ‘가족주의’라는 전체적 구조에 의해 개인적 희생을 강요받으며 드러내지 못했던 지점이다. 그러나 <굿바이 솔로>에서는 ‘가족주의’에 의해 함몰될 수 있는 지점을 건드려 제시하고 있다. 얼핏 보면, 미영할머니와 6명의 주인공들이 맺는 관계가 새로운 가족의 일면을 보이는 듯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은 미영할머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인공들 또한 미영할머니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맺는 관계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서로가 거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굿바이 솔로>가 ‘가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개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거울 앞에서는



‘가족’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그 앞에 서 있는 개인이 보일 뿐이다. “우린 남에게보다 늘 자신에게 더 가혹하다. 당연히 힘든 일인데 자신을 바보 같다고 미쳤다고 미워하고, 남들도 욕한 나를 내가 한 번 더 욕하고, 그것도 모자라 누군가는 가슴에, 누군가는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한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면서 우리가 얻으려 하는 건 대체 뭘까? 사랑? 이해? 아니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미리)”

### 5. 그(들)는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 인식 체계에서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의 사랑은 이들에게 결핍의 근거지이다. 이들은 그 결핍의 부분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자신은 ‘혼자’이나 스스로 ‘혼자’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 결핍된 사랑을 채운다. 그것이 거짓이건 사실이건 간에 말이다. 그러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들을 미영할머니 앞에서 이야기하고, 즉 타자 앞에서 발화하면서 자신이 ‘혼자’를 가리려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진정한 ‘혼자’이기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자신이 스스로가 ‘혼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굿바이 솔로”를 외칠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가 끝난 지금 7명의 주인공들은 한 목소리로 “굿바이 솔로”를 외친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았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민호는 이렇게 말한다. “할머니, 나 매일 매일 기도해, 이 세상 모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등 뒤에서 안이줄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할머니, 나는 행복해. 할머니도, 행복해?” 이것이 <굿바이 솔로>가 ‘가족주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이 시대의 ‘가족’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이다.